

서울 흥대 앞 처럼 ...

“광주의 클럽 문화 우리가 만든다”

서울 흥대 앞 클럽은 매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되고, 심심한 문화적 감성이 숨쉬는 곳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고, 예술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행복한 놀이터다.

차 목표지만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영상문화센터가 자리한 사직공원 일대를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메카로 만들고 광주 시내 곳곳에 문화 향기를 전하자는 포부다.

언뜻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던 데는 2008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9일)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린 ‘광주를 여행하는 공연’으로 인연을 맺은 음악인들은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비엔날레가 끝나더라도 지속적



크로스 오버·재즈·플루트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인 의기투합 매달 두차례 정기공연 갖기로

화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의기투합했다.

참여 그룹은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를 비롯해 재즈 밴드인 ‘Shade of Blue’, ‘Almost Blue’, ‘Take5’와 플루트 연주단체인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 가이급 주주단 ‘그린나래’와 ‘가연하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으로 ‘무대’를 만들어가자는 데 공감을 했다.

참가단체들은 각 연주 단체의 역량을 키워 각종 문화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문화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지만 의외로 지역 음악인들이 설 공간은 작은 편이다. 행사 주최측의 지역 단체 외면도 일정 정도 이유인 하지만 음악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내보이

지역 뮤지션들이 클럽 문화 활성화를 위해 11월부터 매달 두차례 클럽 ‘곡스’와 광주영상문화센터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클럽 공연에 참여할 ‘데이 크 5(위)’와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의 연주 모습.

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의기투합한 지역 음악인들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자신들의 역량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요즘엔 음악이 무대 공연이나 앨범 작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음원으로 활용되는 등 역할이 무궁무진해 새로운 도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emlee@kwangju.co.kr

허희태 서화각 예술 47년展

11월4~10일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가 허희태씨가 오는 11월4일~10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허희태 서화각 예술 47년展’을 갖는다.

허씨는 프로팩터와 컴퓨터를 이용해 전통 서예를 변형한 이모그래피(Emography·Emotion+Graphy)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물의 이미지를 글자의 획으로 표현한 서예작품과 조각, 이모그래피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먹의 번짐과 스미가 잘 표현됐고, 큰 붓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획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종이나 탑 등에 새겨진 부처상과 돌장승을 형상화한 ‘천년의 미소’, ‘천년의 대화’에는 구름의 흐름과 부처의 미소 등이 은은하게 처리됐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은 한글 서예와 조각 예술이 어우러진 단아한 묘미를 선사해 준다.

미술평론가 김복영(전 홍익대 미대 교수)씨는 “갑골문, 선사 암각화에 나타나는 구조를 원형 삼아 현대의 감성을 재창출한 작가”라고 평했다.

순천 출신인 허씨는 독일과 서울 등지에서 5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광주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무산 서예 이모그래피 연구원장, 세계미술연맹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369-35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년의 미소’

김문옥과 근대 유학 영호남 교류 조명

오늘 화순군청서 심포지엄

호남 노사학통의 맥을 계승한 호남 김문옥(1901~1960년) 선생의 학술적 가치와 근대 유학의 영호남 교류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30일 오후 2시 화순군청에서 열린다.

김문옥 선생은 노사 기정진(1798~1879년)-노백헌 정재규(1843~1911년)-윤계 정기

(1879~1950년)로 이어지는 노사 학통을 계승한 학자이며 윤계의 마지막 제자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와 조선대 고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근대 유학의 영호남 교류와 효담 김문옥’을 주제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봉곤 국사편찬위원회, 초당대학교 김영주(경영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정길수(한문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 광주대학교 고영진(관광학부)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오용(역사연구실) 교수, 건국대학교 신병주(사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발제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오광록기자 kr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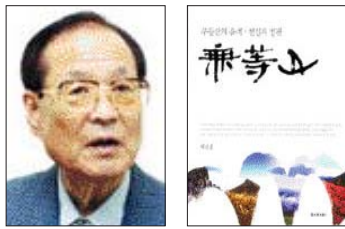
박선홍씨 ‘무등산’ 개정판 발간

‘광주 1백년’ ‘무등산’ 등을 통해 광주의 근·현대사를 기록해온 박선홍 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장(사진)이 최근 ‘무등산’ 개정판을 컬러 판으로 발간했다.

이번 7번째 개정판에는 그동안 ‘무송원’으로 알려졌던 고 현준호(1889~1950·호남최초의 민족은행인 호남은행 설립 주도)의

제각이 ‘학선재’라는 원래의 이름을 찾게 된 내용과 일제강점기 때 소나무 위에 지어진 정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와송정’ 사진 등이 새롭게 수록됐다.

1976년 첫 출간된 ‘무등산’은 호남지역의 불교신앙의 중심지이자 조선조 가사문학의 산실인 무등산의 유래와 풍속, 경관 사진은 물론



무등산 초기 개발활동부터 무등산 산악운동의 발자취까지 무등산에 대한 정보가 총 망라돼 있는 책이다. 박 이사장은 광주상공회의소 부

회장, 광주·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무등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에는 ‘무등산 공유회 재단’을 설립,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뛰어들었다. 또 1994년에는 19세기 말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향토자료와 역사를 집대성한 ‘광주 1백년’이란 책을 펴내 광주 역사의 산증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모노드라마 ‘여배우 문희’ 다시 무대에

11월 6~9일 공동예술극장 문진희씨 타이틀롤 ‘눈길’



지난 5월 공연됐던 모노드라마 ‘여배우 문희’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11월 6일~9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극단 ‘허방’ 대표 김영학씨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여배우 문희’는 지방 소도시에서 여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다. /김미은기자 emlee@kwangju.co.kr

특히 이 작품은 광주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여성 모노드라마로 올해로 연극 인생 20년을 맞은 문진희씨가 타이틀롤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문 씨는 이번 작품에서 애인이 된 팬, 연출자 등 남자 역할을 포함, 10여명을 연기하며, ‘페드로’, ‘메디아’, ‘살로메’ 등 배우 문희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 속 주인공으로도 변신한다. 또 자신의 특기를 살려 그림자 인형극 ‘우렁각시’도 극중 극 형식으로 선보인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1만원. 문의 018-642-9263. /김미은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osmos Fashion Town' with a large image of a modern shopping mall and text in Korean. Includes a table with dates and times.

Advertisement for 'Dongdaebad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fish and text in Korea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